현대적 의미의 전통철학 논쟁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지음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고광직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학문적인 논쟁의 가장 큰 이점은 논쟁주체들이 그 과정에서 발전적인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데 있다. 각기 상대방의 논리구조를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의 논리구성력을 강화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학설의 폭과 깊이가 더 넓고 깊게 정리되어 보다 나은 이론이 정립된다. 논쟁이 없으면 학문이 진보하지 못한다는 것도 그래서 생겨난 말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 속해 있는 10명의 소장학자들이 집필한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은 한국전통철학 사유체계의 흐름에 중요한 몫을 했거나 흐름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11개의 논쟁을 주제별 연대순으로 서술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교선(敎禪)논쟁 돈점(頓漸)논쟁 유불논쟁 태극논쟁 주리주기(主理主氣)논쟁 사칠리기(四七理氣)논쟁 인심도심(人心道心)논쟁 인물성(人物性)동이(同異)논쟁 서학논쟁 심설(心說)논쟁 현대한국철학논쟁을 다루고 있다. 이것을 다시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불교논쟁 2편, 성리학논쟁 6편, 성리학과 불교 및 성리학과 천주교를 다룬 논쟁이 각각 1편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전통철학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는 글이 실려 있다.

논쟁발생의 배경파악

이 책은 특히 논쟁주체들의 학설 중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는 가치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그들의 철학이론과 논리체계를 가능한한 쉽고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고, 논쟁발생의 사회적 배경과 논쟁의 의의를 당시대 및 현대라는 두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특기할 만하다. 이처럼 주목되는 젊은 필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理나 氣라는 글자만 보아도 주눅이 들어버리는 일반독자들도 특별한 거부감이나 어려움없이 전통철학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태극논쟁-태극을 둘러싼 주자학적 이해와 비주자학적 이해의 대립〉(김교빈)은 성리학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자학의 입장에 선 이언적(李彦迪, 1491~1553)과 양명학 또는 노장적 경향의 조한보(趙漢輔) 사이의 논쟁을 다루고 있다.

최초의 철학논쟁으로 꼽히는 이 논쟁은 인간의 도덕근거가 무엇이며, 그 본질을 어떻게 체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필자는 태극논쟁에서 이언적이 불교와 노장적 견해를 바탕으로 성리학을 이해하는 조한보의 견해를 배척해냄으로써 조선조 성리학 정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태극을 理로 규정, 그것에 창조적 도덕성을 부여한 그의 주장은 뒤에 理를 우위에 두고 심성론을 철학의 주축으로 삼아 도덕적 가치를 강조한 이황(李滉)의 철학에 토대가 되어 성리학의 한국적 특성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고 강조한다.

〈사칠리기 논쟁-주희 심성론의 한국적 전개를 위한 최초의 갈등〉(전호근)은 이황과 기대승(奇大升)의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필자는 사단칠정과 이기론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서 시작, 사단칠정에 대한 문제로 축소되어간 과정을 소개하고 이황과 기대승의 입론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해 주자학의 기본주제인 이기론과 심성론을 결합시킴으로써 중국 주자학과 뚜렷이 구별되는 조선 주자학의 독자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단칠정' '이기론'에서 '심설논쟁'까지

〈인심도심 논쟁-도덕심과 욕망 그리고 하늘의 도리는 같은가 다른가〉(권인호)는 조선중기 여러 학자들의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노수신(盧守愼)과 이황,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논쟁을 다룬 뒤 다시 윤휴(尹鑴)와 허균(許筠)의 이론까지 검토한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사변적인 논의구조에서 탈피해 더욱 폭넓은 주제를 선현들의 문집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 책은 한국전통철학 사유체계의 흐름에 중요한 몫을 한 11개의 논쟁을 주제별 연대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논쟁의 학설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가치판단보다는 논쟁발생의 사회적 배경과 의의를 당대와 현대의 두 측면에서 파악한다. 논쟁에 대한 단순한 정리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명쾌하게 파악케 하고 있다.

〈인물성동이 논쟁-인간과 만물의 차별성에 대한 검토〉(김형찬)는 권상하(權尙夏)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간(李柬)과 한원진(韓元震)의 논쟁을 다룬 뒤, 이어서 이항로(李恒老) 기정진(奇正鎭) 이진상(李震相) 등의 주장을 살피고 있다.

필자는 특히 조선말기를 대표하는 이항로 기정진 이진상 세 학자는 理의 강화를 통해 외세에 대처하고 성리학적 이상국가 체제가 정비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인물성동이론의 성과를 포용해가며 자신들의 이론을 정립시켜 갔다는 데 주목한다. 그중에서도 이항로와 이진상은 인성·물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性'이 발현되는 곳으로서의 '心'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킴으로써 조선시대 마지막 성리학 논쟁인 심설논쟁을 이끌어냈다고 밝히고 있다.

〈심설논쟁-주자학적 심설 논의에 대한 수정주의와 정통주의의 대립〉(이상호)은 조선후기 성리학자들의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던 '心'에 대한 이해를 이항로 이진상 전우(田愚) 등의 이론을 비교해 가면서 살피고 있다. 이황과 이이 이후 전개된 조선 성리학사에서의 심설논쟁은 조선후기에 이르면 주자학의 주요 명제를 수정할 정도로 심화된다. 필자는 조선후기의 심설논쟁의 주된 이론근거를 心을 이기의 합으로 보는 입장, 심을 理로 보는 입장, 심을 氣로 보는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심설논쟁은 이런 각 입장에서 인물간 학파간에 끊이지 않고 이어져 성리학계의 주된 주제로 다루어졌지만, 심성론에서의 차이가 인식론이나 수양론에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필자는 심설논쟁이 기본적으로 모순을 지니고 있는 주자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위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5편의 논쟁은 이 책에 실려 있는 11편의 논쟁 가운데 실제로 벌어졌던 성리학 이론을 중심으로한 논쟁만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실제로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서로 대척점에 선 논리구조를 다룬 흥미있는 논쟁들이 더 많다. 보조국사 지눌이 입적한지 761년만에 현대의 성철스님이 반론을 제기해 불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돈점논쟁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책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는 〈현대한국철학논쟁-오늘날 한국철학에서 두가지 쟁점〉(손영식)은 별다른 논쟁이 없었던 현대 한국철학에서 쟁점을 골라내고 그것을 논쟁스타일로 구성해 현대의 전통철학 연구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젊은 학자들의 새로운 시각 전개

필자는 관념론과 유물론, 특수와 보편이라는 두가지 쟁점을 내세워 철학연구자들을 비판한다. 북한이 철학사를 유물론의 도식에 무조건 맞추고 있는 반면, 관념론에 빠진 남한의 경우는 주관이라고는 없이 불교나 성리학의 관념체계 안에서만 뱅뱅 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철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종합될 때 '우리철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현재처럼 '나' 아닌 연구대상 전통철학자가 주어가 되는 논문이나 공허한 이론만 양산하는 철학이 계속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책은 전반적인 한국철학사는 아니다. 그러나 이 책에 실린 각편의 글은 논쟁을 단순히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해 온 우리의 형이상학적 관념체계를 새롭고 명쾌하게 파악해 보려는 의욕에 차 있다. 젊은 집필자들의 이런 의식과 집념이 난해한 전통철학자들의 학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성과를 거두게 했다고 믿는다.

이제 전통철학연구도 젊은 학자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활기차게 전개되어 아직 한국철학사의 공백기로 남아 있는 개항이후 1백여년의 시기가 머지않아 메워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예문서원 / A5신 / 324면 / 7500원